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10)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

Beaux-Arts와 합리주의 건축사상

김미상* / 경기대 건축대학원 강사
by Kim Mi-Sang

목 차

1.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① 장식 (la Décoration)
2.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② 배치 (la Distribution)
3.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①
4.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②
5. C-N Ledoux의 건축이론 ①
6. C-N Ledoux의 건축이론 ②
7. J-J Lequeu의 건축이론
8.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9.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10. Beaux-Arts와 합리주의
11. Le Corbusier의 건축사상에 나타난
합리적 건축의 전통
12. Epilogue: 21세기와 건축이론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건축학교들, 그리고 Beaux-Arts(보자르)식 건축개념과 이론은 고전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유래를 이탈리아 Renaissance 시대의 문학과 예술로부터 찾을 수 있다. 17세기 최초의 Académie royale d'architecture(아카데미 루아얄 다쉬뎁뛰르: 왕립건축학교)를 지배하던 주된 건축 개념은 'bonne architecture(본느 아르쉬뎁뛰르: 좋은 건축)'이었다. 이 개념은 당시의 배경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겐 일견 막연하고 피상적이며 정의하기 어렵게 보인다. '좋은 건축'이란 확고히 고정된 취미(趣味 - 徼: goѴut; 英 taste; 西: gusto 에 해당)의 원칙에 기초하여 탄생한, 아름다운 형태의 건축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의 교육자들에 의하여 널리 받아들여진 이론이었다.

François Blondel은 1671년 12월 31일에 열린 Académie의 첫 회합에서 Académie는 건축이론을 확립시켜야 하며 이 이론에 기초하여 건축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1주 간격으로 속개된 2번째 및 3번째의 회의에서는 Blondel의 발기로 'bon goust(봉 구스트: 좋은 취미)'의 문제를 의논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회의는 'bon goust'를 구성하는 사물들의 진정한 법칙을 깨닫게 하기 위한 교육을 논의한 장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bon goust'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지식인들의 위대한 저작 및 작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에 따르면 '좋은

* 본명 김원식

은 design' 이란 실용적인 필요, 재료, 시간과 장소 또는 건축가 개인의 특수한 재능 등에 의해 색다르게 결정되는 어떤 독특성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건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전칭명제인 'bon goust' 에 기초하고 있다. Académie를 풍미한 'bon goust' 의 개념은 고전주의의 이상주의 철학, 즉 아리스토텔레스와 신 플라톤주의의 전통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두 전통의 영향이 순수한 플라톤주의의 영향보다 더욱 두드러진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신플라톤주의는 진, 선, 미의 덕목을 가장 숭고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Platon에 의하면 특수한 사실 및 자연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건이나 감각 등은 단지 보편적 이데아(idea)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이데아 또는 보편성은 특수성보다 주장함과 아울러 보편적 원칙은 특수한 일 또는 사건 등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것들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인 원칙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상에 따르는 건축가 및 이론가들은 건축의 보편적 원칙이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건물 또는 그 부분들을 연구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종자들은 역사적으로 뛰어난 모범으로부터 기초하여 만든 원칙들을 특수성의 것보다도 한층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따르는 아카데미의 이론가들에 의하면 모범적 원칙들은 특수한 예들을 바탕으로 공식화되므로 특수한 예들을 신중히 연구하고 본받아야 할 모델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추상적 개념인 대칭(symetrie), 질서 또는 주범(ordre), 조화(harmonie), 비례(proportion) 등을 단순한 노동으로써 형성되는 건축, 또는 공예적인 건축물로부터 진정한 건축작품을 분리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변별요소로서 생각하였다.

Plotinus(플로티누스: 204-270년경)로서 대변되는 신플라톤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 그리고 플라톤의 학파와는 다르게 - 예술작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이 사상은 진정한 예술작품이란 감각의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며, 감각의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특수성과는 관계없는 독립된 통일체임과 아울러 추상적인 미를 갖추고 있을 때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신플라톤주의는 특수성이란 단지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플라톤의 전통과 세계의 기본은 바로 이러한 특수성으로써 구성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상은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신과 동등하게 취급되던 진, 선, 미의 절대적 이데아로부터 유출되는 존재들로 이루어지는 연속사슬 중 최하부 기초부

분에 가깝기 때문에 열등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이데아로부터 유출되는 존재들의 연속사슬 중 어떤 예술작품이 위치한 장소를 알기 위해서는 최상부로부터 최하부까지 내려가야 한다.

François Blondel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보편적 일치(consentement universel)는 보수적 성향의 학교들이 지니는 사상과 이론의 기본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 후원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와 신플라톤적 사고를 건축 및 여타 예술에 적용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건축 및 예술분야에서의 '훌륭한 디자인' 이란 아리스토텔레스적 질서원칙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대칭, 조화, 비례 등을 디자인의 기본 도구개념으로 하고 특수한 예를 기본으로 하여 합리적인 공식을 만들어 공식화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해와 파악은 시각을 동원한 감각을 동원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 무리의 주장을 따르면 - 현대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비논리적으로 생각될 여지가 굉장히 많지만 - 최고의 위치를 기념비적인 건축에 할애하고 있다. 왕궁, 교회 등으로 대변되는 기념비적 건축물들은 가장 보편적인 내용을 광범위하게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항구 불변한 영원의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최하부의 건축물은 빈약한 항구성과 기념비성을 지니는 것들로 특정의 용도와 경제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 그리고 국민 중 최하층 계급의 작품 및 주거 등이 차지하게 된다.

건축계 및 미술계에서는 제각기 적합한 사상을 채택하게 되어 크게 2 그룹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상의 보수성 및 혁신성에 따라 보수주의자들은 고대인, 선배 등의 의미가 담긴 les Anciens(레 장시앙), 진보주의자들은 현대인 이란 의미의 les Modernes(레 모데르느)로 지칭하였다. 이 두 그룹은 기본적으로 르네상스를 통하여 소화되고 전래된 고대문화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였지만 각기 매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종종 아카데미 내부에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아카데미에서 주류를 이룬 그룹은 Les Anciens이었고 그 이외의 군소그룹은 모두 les Modernes로 분류되었다. 후자들은 미의 원칙은 보편적인 것이므로 모든 시간과 장소에 동일하고 적합하다는 les Anciens의 견해를 부정하였다. 그 예로서 근대의 중요한 건축적 발전은 Palladio(팔라디오), Vignola(비뇰라) 등과 같이 고전주의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사실에 근거하여 건축은 멀리는 고대로부터, 그리고 가까이는 르네상스시대로부터 발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궁극적으로 그들의 개념에 따르면 건축의 원칙이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부분적인 것이며 상대적인 문화의 산물인 것이다.

les Anciens에 반대하는 les Modernes 가운데 한 무리는 좋은 예술작품이란 예술가가 품고 있는 아이디어와 일치하는 창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 무리 즉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아이디어를 소유하고 있는 창조적인 개인의 중요성을 비(非)플라톤적인 방식으로 강조하고 조명함으로 아이디어의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성기 르네상스시대의 직설적 고전주의에 반하여 형성된, 적어도 예술가의 개인적인 환상이나 공상의 표현을 장려하는 이탈리아의 매너리즘적 수법에서 발견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후에 이 원칙은 각 개인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기독교의 교리, 원칙에 의하여 보강되어 바로크 건축과 미술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바로크 역시 개인주의적 낭만주의에 의하여 대체된다.

les Modernes 가운데 극단적 성격을 지닌 또 다른 한 무리는 'bonne architecture' 이란 자연의 특수성과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연의 특수성이란 구조재료 및 구조기술 등이 특성의 시간 및 장소에 적합한, 건물의 본원적 성질에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유물론적 기능주의를 포함하게 된다. 이 무리는 les Anciens이 신봉하는 고전적 출처란 영원한 법칙과는 거리가 먼, 단지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므로 과거의 업적을 초월하여 새로이 발명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서 17세기 Académie royale d'architecture(왕립 건축 아카데미)의 les Modernes 가운데 지도적 인물이었던 Claude Perrault(끌로드 페로)는 의사이자 건축가였으며 특히 공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의 실증주의적 과학에의 관심은 후에 les Modernes들이 자연을 관찰하여 법칙을 만들어낸 Newton을 본받으려 하는 움직임으로 연결되었다. Perrault에 의하여 고무된 일단의 인물들은 Gothic 건축이 합리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구조를 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옹호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19세기의 Viollet-le-Duc(비올레 르 뤼)와 같은 프랑스의 구조적 합리주의자들에게까지 연결되는 전통을 이루게 된다.

아카데미의 이론에서 Descartes 역시 큰 공헌을 하고 있는데 방금 언급한 두 번째의 les Modernes의 시각과 아주 유사하다. 이 시각에 따르면 명증성이 증명되지 않는 것은 모두 거부하고 있어서 신화적이고 신학적 규범이 되는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 등은 모두 권위적인 것이고 본원적인 진실을 상실한 본받을 이유가 없는 것들이다. Descartes에게 중요한 것은 일반적 아이디어이다. 이것은 신에 의하여 주입되어 모든 인간에게 공히 부여된 본원적인 아이디어로부터 유래하는 일반개념이어서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

며 기하학의 옷을 입고 있다. 그의 판단도구는 바로 이성(理性)인데 아카데미 내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와 les Anciens들이 고수한 신플라톤주의를 혼합하여 하나로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Descartes에 따르면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은 기하학의 형태의 근원을 구성하고 있다. 최상의 단위체로서의 기하학적 형태는 예술의 목적이 되는 항목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사상은 과거 대가들의 작품에 의하여 예증된 형식주의적인 미, 그리고 본원적인 취미(goust inné)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François Blondel은 les Anciens의 견해를 대표하고 있었지만 루이 14세 말기의 주요한 건축가인 Claude Perrault 및 아카데미의 회원이었던 Jules-Hardouin Mansart(쥘 아르두앙 망사르)는 양 진영을 합성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비슷한 유형의 합성의 경향을 Académie royale d'architecture(아카데미 르와얄 다쉬텍뉘르: 왕립 건축학교)의 주요 인물이자 확고한 학교의 전통을 수립한 Jacques-François Blondel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예술계를 지배하던 또 하나의 아카데미의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시학'에서 언급하는 자연의 '모방(imitation)' 이론이다. 그가 언급하고 있는 자연이란 단순한 자연이 아닌 일반화된 자연으로서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것, 우발적인 것보다는 상위(上位)의 것이며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것을 제거한, 전형적인 자연을 의미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이것을 la belle nature(라 벨르 나튀르: 아름다운 자연, 진실한 자연)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의 모방이란 언급한 대칭, 질서(또는 주법), 조화, 비례 등 자연의 일반적 특성을 차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Vitruvius의 '건축 10서' 가운데에 반영되어 언급되고 있다. Académie의 제 6차 회합에서는 Vitruvius를 가장 최초의 그리고 가장 권위있는 건축가로 지명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고고학의 발달과 함께 축적된 정확한 고고학적 지식은 맹목적으로 찬양되던 신화적인 고대의 권위를 허물기 시작하였으며 좀 더 근본적이고 순수한 양식에 다다르기 위한 노력의 촉매제가 되었다.

프랑스의 아카데미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에 일치하는 것으로 고전시대 및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의 디자인 규범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일반자 개념과 연관시키고 있다. 즉 Louis 14세 시대의 건축가들은 고대 및 르네상스시대의 건축가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비례 속에서 미를 찾을 수 있다고 여겼다. 이런 견해를 가장 잘 표현하던 인물로 François Blondel을 꼽을 수 있다. 그는 건축미의 원인이 되는 으뜸 요소 가운데 하나는 비례(proportion)라고

생각하였으며 주범(柱範)이나 여타 건축요소들이 지녀야 할 이상적 비례를 연구하여 이론화하였다. 그에게 좋은 비례란 단순히 인습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자연의 법칙에 근거하는 것으로 과거의 건축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였지만 이전의 모델을 모방하도록 권장하지는 않았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과거의 모방이란 전거를 마련하여 준 이는 바로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시인인 Horatius였다. 그는 Ars Poetica(아르스 뵈에띠까: 詩作法)에서 과거를 본받고 모방하도록 권장하였다. 아마도 이 사상에 의하여 고취된 프랑스의 아카데미학 전통은 이전에 확립된 모델, 특히 고대 그리스 및 로마와 르네상스건축의 고전성을 따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건축사 전반에서 본다면, 적어도 18세기 후반에 이를 때까지 유럽에는 그리스건축이 잘 알려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로마건축과 르네상스건축은 그리스건축보다도 우위에 있었다. 이처럼 로마와 르네상스건축을 편애하는 분위기하에서 왕립건축학교의 제1서기관이었던 Félibien(펠리비앙)이 그의 저서 'Principe de l'architecture (프랭시 드 라쉬뎨튀르: 건축의 원칙)'를 통하여 Vitruvius와 Palladio를 가장 훌륭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비교적 개인의 천재성이나 독창성을 무시하는 경향을 지닌, 과거의 고전주의적 건축을 찬미하고 따르는 움직임은 이탈리아의 매너리즘시대에 시작되어 낭만주의시대에까지 이르렀다. 비록 왕립건축학교가 고전적 전통에 고착되어 있긴 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시각 가운데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선 디자인에 있어서 고전주의가 표방하는 일반규범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고대건물 중 하나만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있는 다수의 건축을 모범으로 연구하여 그 중 최상의 요소들을 취하여 가장 정확한 취미를 확립하려는 태도이다. 이런 태도는, 정확히 말하여, 아리스토텔레스적이고 플라톤적인 규칙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특성의 경우를 강조하는 것은 고전주의적인 정신에 속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낭만주의적 시각에 의지한다고 할 수 있다. 비평가 또는 이론가들이 이 시대를 휩쓴 고전건축 가운데 특성의 모델을 복사, 재현하던 움직임을 가리켜 고전주의적 낭만주의로 부르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프랑스의 아카데미주의적 건축은 고전주의의 규범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최상'을 구성하는 개념자체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취미의 변화에 따라 변천하였다. 그 결과 아카데미주의의 건축가들은 고대 또는 르네상스의 고정된 권위로부터 자신들의 이론을 변별화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왕립건

축학교의 건축가들은 고대의 권위를 자주 비판함으로 자신들은 Vitruvius나 Palladio 등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Vinco Scamozzi (빈센박 스카모찌), Jacopo Barozzi Vignola (자코뵈 바로찌 비놀라), Philibert de l'Orme (필리베르 드 로름), Jean Bullant (장 빌랑)과 같은 16세기 이탈리아 및 프랑스 건축가들을 평가하여 그 우수성에 따라 급수를 선정하고 목록을 만들었다. Blondel은 고대의 권위에 대하여 비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였으며 후대의 건축가들이 고대 그리스 건축이론과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이론을 변경시킨다고 해서 일반적인 고전적 건축언어와 규칙을 손상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영향에 전염된 건축가들은 비록 로마의 건축을 추종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있어서 반드시 로마의 건축을 따르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관점에 가장 적합한 것을 발견하여 새로이 개량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또한 프랑스의 고전주의적 건축가들이 로마의 건축이론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것이 실제로 Palladio, Vignola, Scamozzi 등의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가들이 이루어 놓은 고전주의에 관한 해석과 시각이었던 것이다. 비록 르네상스시대에 널리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아카데미에서 채용된 원칙들은 고대 로마의 건축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이었지만 전형적인 로마의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의 성기 르네상스시대에 건축가들이 품었던 의도는 단순히 로마의 건물을 복사, 모방하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추출한 모범적인 요소와 규범들을 합성하여 일반적인 법칙을 만들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프랑스의 건축가들은 이탈리아의 건축가들보다도 훨씬 더 르네상스시대의 저작물에 집착하여 한층 더 엄격한 이론을 만들었다. 하지만 Palladio나 Vignola와 같은 고전주의 취향의 건축가들만이 프랑스의 아카데미즘에 영향을 끼친 건축가, 이론가들은 아니었다. 비록 정도는 덜하지만 Michelangelo를 위시한 매너리스트들과 바로크 건축가들 역시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Louvre의 재설계안을 만든 Bernini의 라이벌이었으며 Borromini가 도입한 소용돌이 장식, 부서잔 박공, 벽감에 위치시킨 원주 등을 이상한 건축이라고 눈을 찌푸리며 혈뎀은 Blondel에 의하면 이런 모양의 바로크 건축들은 진실한 건축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순수한 발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실한 미를 타락시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londel은 Michelangelo가 설계한 성베드로 사원의 후면 파사드를 칭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소재 17세기의 바로크 건물들을 아주 훌륭한 건축의 본보기로서 들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예술적 이상 및 정치적 이상 때

문에 성기 르네상스시대에 풍미한 고전적 경향이 Richelieu(리슐리유), Mazarin(마자랭), Louis 14세 치하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고전적 경향은 바로크와 토착양식인 Mansart 지붕의 건축과 합성되어 특징적인 양식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단순한 바로크와 Palladio양식의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독창적인 프랑스의 양식을 만들게 되었다. 이 특징적인 프랑스의 양식은 Louis 14세 시대에 널리 사용되었는데 중앙정부가 모든 예술분야를 관할하여 감독하였기 때문에 관청건물 및 건축학교의 설계경기인 Grand Prix(그랑 프리)의 디자인 방법론으로 널리 사용되었고 보수적인 보자르식 건축교육의 내용을 지배하였다.

프랑스의 전통에는 극도로 엄정한 고전적 경향 또는 팔라디오적 건축을 바로크 및 낭만주의와 결합시키는 보수주의, 그리고 자유로운 경향이 병존하고 있었다. les Anciens 및 les Modernes의 분쟁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싹트게 되었으며 결국은 les Modernes의 승리로 끝난 1968년까지 지속되었다.

보수진영은 Académie 내에서 항상 지배적이어서 독단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미의 본질은 확고부동하며 자연스런 디자인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영원불변의 법칙에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진보와 진화론적인 발전의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오로지 주기적인 전진과 후퇴의 개념만이 그들의 통념이었다. 그러나 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한 Francis Bacon의 영향은 모든 분야에 대대하여 진보의 개념이 널리 채용되기 시작하여 건축을 비롯한 예술의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현재의 과학의 수준은 과거의 것보다 더 나은 상태이며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로써 진보와 발전의 개념을 뒷받침하는 좋은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Blondel은 엔지니어출신으로 수학을 존중하던 사람이어서 당시의 눈부신 수학분야의 업적과 발전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수학법칙을 건축에 응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호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이 건축에 실제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 것은 18세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어찌되었든 당시의 보수주의자들이 숭고한 덕목으로서 독창성이나 유용성보다도 합리적 방식의 구성(composition)방법, 즉 수학적 법칙, 정확히 말하여 기하학과 수학적 비례의 법칙에 근거하는 구성을 높이 사고 있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아 이것은 왕립건축학교가 설립될 당시는 Descartes의 철학사상 및 조화(harmonie)라는 미학적 기준이 예술과 건축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미 Blondel 및 Félibien에게서 이성을 중시하는 Descartes적

rlndnsdf 찾을 수 있어서 Académie의 3차 회의에서는 이미 이성의 도움을 얻어 건축물의 각 부분이 올바르게 어울릴 때 아름다운 미와 정확한 비례를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Académie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태도는 예술에 대한 귀족적 자세이다. 어느 정도는 Vitruvius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자세는 신플라토니즘과 르네상스를 거쳐 귀족중심의 문화가 꽃피었던 Louis 14세 시대에까지 전달되었다. 당시의 일반적인 시각에 의하면, 그리고 이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은 Blondel이 이야기하였듯이, 건축의 미를 식별하고 올바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어서 오로지 지적 귀족층만이 이런 상류의 문화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다. Blondel은 숭고하고 존경스런 Louis 14세가 건축예술을 비천한 삽과 모르타르로의 작업으로부터 구출하였다고 칭송하였다. 그는 또한 Académie의 건축가들의 지위를 귀족과 왕을 고객을 상대하는 위치로까지 고양시켰다. 아마도 guild의 조합원이었던 집에서 태어나 작위를 받고 왕의 총애를 받으며 정부 고위직에까지 이른 Mansart는 이같은 예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귀족주의적 태도는 건축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건물마다 지위를 부여하여 신플라토니즘적인 존재의 연속사슬개념에 근거한 위계체계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귀족주의적 취향은 우선 왕실 및 귀족의 건축에 중점을 두었지만 그 영역을 확장하여 증권거래소, 시장, 도서관, 화폐주조소 등으로 좀 더 분화된 공공건물의 범주를 포함하게 되었다. 왕립 건축 아카데미의 교수였던 Blondel이 그의 저서 'Cours d'architecture(꾸르 다쉬뻬뛰르: 건축강좌)'의 2권에서 건물의 유형에 관하여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항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그 뒤로 공화정이 된 후의 Académie des Beaux-Arts(아카데미 데 보자르: 미술 아카데미)에서도 이런 분류가 가장 가치있는 문제로 취급되었다.

이처럼 숭고하고 품위있는 건축의 주제를 다루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이론에 근거한 자연의 개선(改善)이란 정신으로부터 유래한다. 회화나 조각분야에서조차도 자연을 글자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회피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위계에 있어 최하부에 위치한 풍경화와 정물화를 그리기를 기피하였다. 아카데미의 예술가들은 자연주의자라기 보다는 인본주의자들이어서 자연을 다룰 때는 단지 인간에 의해 '구성'되고 이상화된 la belle nature - 비레란 바로 la belle nature로부터 유래한다고 아카데미주의자들은 믿었다 - 만을 강조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Blondel 및 Félibien 등의 건축가 및 이론가들이 이상적인 미를 보장하기 위하여 la belle nature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형식주의적인 구성(composition)

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la belle architecture(라 벨 아르쉬뎁뛰르: 아름다운 건축 또는 진실한 건축) 또는 la bonne architecture의 원칙은 고전적인 전통건축 및 선형적인 이상에 기본하고 있어서 항구적이고 영구한 추상적 형태의 구성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아카데미적 시각에서 본다면 자연은 보편가치를 지니는 형식주의적 구성의 원칙에 따라 예술가가 재구성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런 지적 컨텍스트를 고려한다면 Grand Prix의 참가자들이 실제의 대지를 선택하여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여 임의로 설정한 대지 위에 디자인 원칙에 따라 자연을 재구성하고 건축물을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Grand Prix에서는 Descartes가 주장하는 추상적 논리성, 통일성, 명확성을 갖춘 고전주의적 '구성'을 따르는 작품만이 채택되었다.

이처럼 고전주의적 구성에 의한 건축은 태양왕 Louis 14세 치하 절대왕정의 권위와 위엄을 표현하고 과시할 수 있는 좋은 도구였다.

Académie는 이러한 배경에서 무엇보다도 고전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디자인 방법론으로 통일적 배치, 중앙집중화한 구성, 대칭성 등을 더욱더 강조하게 되었다. 20세기초의 이론가 Julien Guadet(줄리앙 기아데)는 이 전통을 이어 받아 건축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로 고전건축과 대칭성을 들고 있다.

왕립 아카데미가 성립될 당시 대칭성과 비례는 서로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이해되어 그 사용에 있어 혼동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대칭성(symétrie: 英 symmetry)과 비례(proportion)이란 단어는 그리스 어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생긴 혼란상이다. 고대 그리스의 개념, 그리고 고대 로마의 Vitruvius의 개념에 의하면 Symmetria란 현대의 언어가 정의하듯 양편에 동일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전체와 부분이 완전히 조화되어 어울리는 관계를 말하였다. 당연히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아는 지식인들에게는 - 비록 당시에 symétrie란 대칭의 의미로서 사회전반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었지만 - 이와 같은 고전적 정의가 더 한층 당연한 것으로 비쳤다. Perrault가 번역하여 1673년에 출판한 Vitruvius의 '건축10서'에서는 이러한 고민이 잘 반영되고 있다. Vitruvius의 원작은 단어 Symmetria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Perrault는 proportion(비례)로 번역하고 주석에서는 일상적 의미로는 대칭을 일컫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Blondel은 'Cours d'architecture'에서 Symmetria를 좌우대칭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게 좌우대칭이란 비례의 일종이며 구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 가운데 으뜸가는 것이었다. 바꿔 말하면 아카데미스트들이 지상의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질서(ordre)와 형식성(formalité)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구성방법은 통일성, 대칭성 등과 같이 한정된 항목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통일성과 대칭성을 지니는 논리적 모델로서 로마시대의 욕장(浴場)이나 Pantheon(만신전) 등을 채택하곤 하였는데 Grand Prix의 디자인들은 일반적으로 욕장의 평면에서 처럼 한 두개의 초점을 가진 단순 기하학적 형태로써 이루어진다. 흔히 보통 초점이 되는 공간은 Caracalla의 욕장이나 Constantinus의 바실리카에서와 같이 두 개의 축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지점이 된다. 실제 도면에 있어서 축이란 빈 공간을 가르는 단순한 선이 아닌, 그 중심선에 위치하는 중앙의 실(室)들로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축에 의지하는 축적 구성은 그 구성에 있어서 단순한 기하학적 명료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더욱 그 정당성을 뒷받침받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아카데미즘이 명료성과 가장 순수한 미학을 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사실주의적 회화의 기법이나 개인적 취향 등의 요소는 제거되고 관습적인 건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과거의 고전주의적 건축의 효과를 잘 재현하기 위해서 채택된 재료와 구축방법은 기념비성을 초대한 보장할 수 있는 것들만이 채택되었다. 육중한 석조건물의 기분을 내기 위하여 얇게 자른 석조 외장재로 외부를 치장하는 것, 주요 실과 홀(hall) 등이 기하학적으로 배치되어 대칭축을 이루는 평면배치, 돔(dome) 또는 볼트(vault)를 지니는 단순한 기하학적 입면의 채움 등이 주요한 수법이었다. 프랑스의 아카데미 건축가들은 주로 조적식 구조의 건물형태에 건축언어를 한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추상적 구성이나 올바른 비례(proportion correcte)란 그 구조의 성격을 전혀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평면계획(plan correct)'은 언제나 재료의 성격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다. 석조이건 벽돌조이건, 외피에 석판을 대거나 석회석을 바르거나 벽돌로 치장을 하는 잡석조(雜石造)의 구조이건 어느 것에 상관없이 동일한 표면처리와 한결같은 고전주의적 요소로써 건축물이 구성되었다. 자연히 축조재료나 구축방법이 건축물에 표현되어야 한다는 모더니즘의 기능주의적 정신과는 완전히 대치된다. 토목공학이 합리주의자(rationalistes)로 불리우는 아카데미적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19세기에 이르러야 어느 정도 이러한 미학적 모순의 굴레를 벗게 되었던 것이다.